

## 한국의 조기유학

South Korean Early Study Abroad

이순형(Soon Hyung Yi)<sup>1)</sup>

권미경(Me Kyung Kwon)<sup>2)</sup>

### ABSTRACT

The study abroad phenomenon at an early age in Korea is increasing steadily. Increasing social demand for global leaders, disappointment in Korean educational system and economic growth are motivating more students to study abroad. The study abroad is a social phenomenon that is widespread across all social status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phenomenon in respect to 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al and economical perspectives and seek future research questions. The findings suggest ways to improve Korean educational system, support students currently or planning to study abroad and to re-adjust in Korea after they come back. A balanced perspective is necessary in viewing study abroad phenomenon, rather than preventing, implementing stronger pulling factors in Korean educational system. It is necessary to hold the study abroad as another educational opportunity.

**Key Words** : 조기유학(study abroad at an early age), 조기유학생(students who study abroad at an early age), 적응(adaptation), 문화적응(acculturation), 재적응(re-adjustment).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사회적 필요가 증가하고, 국내 교육여건에 대한 실망과 경제력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조기유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조기 유학은 더 이상 일부 특수 계층

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선진 교육을 목적으로 한 중류층 가정의 부분적 장단기 해외이주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 측면에서 조기유학은 해외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낸 경험이 이후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평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이며, 가족의 분거로 인한 심리적 문

<sup>1)</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sup>2)</sup>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e Kyung K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 Eui Women's College, 8-3 Yejang-Dong, Jung-Gu, Seoul 100-751, Korea  
E-mail : mkay64@sewc.ac.kr

제와 경제적 부담의 어려움을 감수해야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사회 측면에서 보면 이는 공교육에 대한 명백한 불만의 표현으로서, 선진 교육제도로의 이주이며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이다. 조기유학이 지니는 개인적, 사회적 과장을 감안할 때 이 현상에 대한 현황을 다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과 더불어 실질적 정책적 논의가 도출되어야하는 시점이다.

## I. 현 황

조기유학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조기유학 유형, 결정 동기 및 변화의 추이를 중심으로 조기유학의 현황을 확인한다.

### 1. 조기유학의 정의

유학에 대한 범규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호에서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에 따라 조기유학이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홍원, 2005).

### 2. 조기유학에 대한 법적 근거

조기유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회의 분위기와 경제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인해 유학

인정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조기유학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전에는 조기유학에 대한 법적인 언급이 없어, 조기유학은 편법이었고 합법적인 진학이 아닌 자퇴라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진행되어 구체적인 조기유학생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1997년 국내 외환위기 상황을 계기로 정부는 조기유학을 엄격히 규제하여 조기유학생에 대한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남학생의 병무연장도 규제하고 조기유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강화함을 통해 조기유학 줄이려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조기유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999년 11월 교육부가 주관한 조기유학 규제완화 공청회를 통해 자비유학의 자격을 연령과 관계없이 전면 개방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각계 의견 수렴 결과 규제완화 자체는 긍정적이나 부수적 문제가 있으므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자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졌다. 증가하는 조기유학생에게 유학생으로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증가되면서 2000년의 ‘해외유학자유화조치’로 중학교 졸업자 이상에게 조기유학을 허용하기로 하였다.<sup>1)</sup>

### 3. 조기유학의 유형

자비로 출국하는 조기유학의 유형은 나홀로 유학, 기러기 가족유학, 교환학생 형태의 유학으로 구분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첫째 유형은 부모 없이 유학생 혼자 학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나홀로 유학으로 미국에서는 비행기에서 단신으로 내리는 조기유학생들을 비유하여 ‘낙하산 아이(parachute kid)’라 지칭한다. 나홀로 유형의 조기유학생들은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에

1) 현재 해외유학에 관한 법령으로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7002호)을 운영 중이다.

서 또는 친척이나 보호자의 집에서 생활한다. 두 번째 유형은 조기유학 학생과 부모 중 한쪽이 동반하는 분거 가족 형태의 기러기 가족유학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동반하고 아버지가 한국에 남아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해외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공립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동일한 정규과정을 6개월 또는 1년 과정으로 공부하는 유형이다. 해외 교환학생 제도에 연간 1800여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근래에 교환학생 기간을 마친 후 더 남아 유학을 계속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4. 조기유학의 동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가족의 분거를 감수하면서도 이렇듯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는 유학대상국가의 교육환경이 좋아서 교육의 효과가 크며 영어와 같은 국제어를 익히고 선진국에 몰려드는 세계인들과 인맥을 형성하여 한 단계 높은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교육여건에 대한 실망으로, 평등이념에 입각한 획일화된 공교육과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풍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한국 교육여건이 지닌 단점들이 유학을 결정하게 한다. 여기에 해외 유학 규제가 완화되고,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한 경제력도 영향을 미쳤다.

#### 5. 조기유학의 변화 추이

최근 조기유학의 추이를 살펴보면 불법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많고 조기유학생들이 출국

한 후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조기유학생은 1995년에 2259명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1998년 IMF를 계기로 잠시 주춤,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2000년 조기유학생은 4397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29,511명에 달했다.

조기유학에 몇 가지 두드러지는 변화가 확인된다. 첫째, 해외 유학하는 초등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집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해외 유학은 1995년 235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2006년에는 13,814명으로 10년 사이에 60배가량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 조기유학 하는 초등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유학 연령의 하향화 추세도 보인다(윤혜준, 2005). 이렇듯 초등학생의 유학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학하며 단기간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습득한 후 한국에 돌아와 영어로 인한 학업의 부담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며,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도 있다. 외국어의 습득이 만12세 이전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초등학생의 유학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유학대상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동남아 국가나 중국으로의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조기유학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계층에 국한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유학국가마다 학제와 입학허가기준, 생활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유학국가에 따라 유학경험이 다양할 것이다.

셋째, 해외에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던 조기유학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유학이나 국

내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때로는 국내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택하는 등 조기유학 기간과 목표가 다양해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넷째, 조기유학생이 국내 학교에서 부적응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유학에서 선진 교육을 받아 국제인으로 활약하려는 도약성 유학으로의 변화가 확인된다. 과거에는 국내 교육환경에서 공부 어렵거나 적응하지 못해 도피적 대안으로 유학을 선택하던 경향에서 최근에는 유학국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영어를 익히고 국제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도약형 유학으로 변화되고 있다(권미경·이순형, 2007; 박영숙·박광배·최상진·김주환·Antony J. Marsella, 2002; 조명덕,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06).

## II. 연구쟁점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로 인한 조기유학 현상에 대해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조기유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학, 심리학, 가족학, 교육학 및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각 학문분야의 고유한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여 조기유학의 다양한 측면이 설명되어 왔다. 이제까지 조기유학 관련 선행연구들을 연구주제별로 그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사회학적 관점

조기유학이 하나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조기유학이 다른 여러 가지 현상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며, 또 다른 여러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조기유

학은 조기유학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기유학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역으로 조기유학 현상은 국내 상황의 변화와 그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전체 사회 수준에서 조기유학은 하나의 사회변화를 투영하는 사회현상으로 또 사회계층 이동과 유지의 수단으로 조망하고 있다.

#### 1) 선진 교육제 선망현상

조기유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보도내용을 담은 분석하여 조기유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핀 연구들(조혜영·이경상·최원기·Nancy A., 2005; Kangjiyeun & Nancy A., 2009)이 있다. 이 연구들은 조기유학의 급증을 언론이 어떻게 조명해왔는지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국내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기유학 규제에 대한 완급조절과 조기유학의 변화 추이를 설명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한 조혜영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에서 1999년 사이는 조기유학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었던 시기로 이는 IMF 위기를 전후로 한 상황에서 국제수지개선, 외화유출, 조기유학생 현지적응도 부적응, 탈선과 일탈 위주 보도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2000년에는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방침 선포하였다가 중졸 이상자로 자격 제한한 시기로 조기유학 담론이 긍정적 측면(국제적 인재 양성, 영어교육 강점)과 부정적 측면(외화낭비, 국민 위화감 조성, 불법유학)의 담론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 유학자격제한 자유화가 시기 적절함을 강조한다. 그 후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조기유학 대안모색에 대한 담론의 시기로 사실상 조기유학이 전면 자율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조기유학의 다양한 원인분석, 조기유학의 폐

해 지적,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담론,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분석 등으로 다양화 된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 경제적 상황과 조기유학의 경향 사이에 관계를 담론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조기유학이 분명한 사회현상임을 보여준다. Kangjiyeun 외(2009)의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생에 대한 신문 기사 담화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한국교육의 변화와 조기유학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찰하여, IMF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려는 조기유학이 더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또 조기유학의 증가는 1990년대 이후 GNP 증가와 여행 자유화와 김영삼 정부(1992-1997)의 국제화 정책의 영향이라 강조한다. 국제화의 추구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관심을 두어 국제화에 요구되는 영어 구사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평준화된 한국의 공교육현장에서는 준비시키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붕괴 또는 교실의 붕괴라는 표현은 이러한 공교육의 문제를 반영한다. 그 결과 1990년 후반부터 사교육 시장이 확장되고, 공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다 자유롭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킨다는 목적에서 조기유학을 시도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조기유학 현상은 한국 사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획일적인 교육현장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교육 엑소도스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 2) 사회계층 이동과 유지의 수단

한 사회의 교육현상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속성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고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오욱환, 2000). 조기유학의 급증에도 우리사회의 여러 상황이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 중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재생산이론의 관점에서 조기유학을 설명하는 연구들(김경근·윤혜준, 2005; 윤혜준, 2005)이 있다. 조기유학이야말로 기존 지배계층이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 자본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선택이므로 한국사회에서 조기유학이 사회 재생산의 핵심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이 연구들은 자녀의 조기유학은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 계층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조기유학을 고려하므로 부모들이 차별화된 교육기회제공을 통해 자녀에게 계층의 재생산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계급 재생산을 위한 교육전략으로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부모들의 성향에 대한 연구들(강지연, 2002; 김수매리, 2006; 손준중, 2005; 윤혜준, 2005)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계층이동이나 최소한 중류층 유지를 위해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강남지역에 거주할수록, 사무직 이상의 직업 수준을 가질수록 조기유학(탈한국 현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손준중, 2005). 또 조기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와 비선택 학부모 사이의 교육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에는 차이가 있어서 조기유학을 선택한 학부모들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이나 학벌을 중시하는 상징적 학력사회 인식이 높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한국 공교육과 교육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강지연, 2002). 조기유학에 대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인식 연구(김수매리, 2006)에서는 예상보다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확실히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기유학의 여러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가족해체에 대한 염려, 부적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반영된 교육지원활동으로 조기유학을 규정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일반적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서는 기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교육에 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려한다고 하는 사회계층 이동과 유지 수단으로 조기유학을 조망했다.

## 2. 심리적 접근

조기유학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조기유학생 개인 수준에서의 적응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조기유학 하는 개인의 심리적·사회문화적 적응과 그 적응적 요소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조기유학이 학업을 목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해외에서 선택하는 것(한준상·기영화·강양원·박현숙·샤론 메리엄, 2002)임을 고려할 때 그 선택이 성공적인지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로 발전되었다.

### 1) 조기유학생의 적응 실태

초기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조기유학생의 적응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조기유학생의 학교생활이나 그 문화에의 적응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많은 연구들(김현주, 2007; 박정희, 2006; 손유진, 2003; 안병철, 1996; 유정희, 2005; 이기홍, 2005; 한준상 외, 2002)이 진행되었다. 또 유학국가의 선택이 다양

해짐을 반영하여 뉴질랜드(김영희·최명선·이지향, 2006)와 호주(이혜경, 2005), 중국(왕성성, 2005)에서 거주하는 조기 유학생들로 연구범위도 넓어졌고 최근에는 연구대상을 여러 유학국가에서 표집 한 국가 간 적응비교 연구들(교육인적자원부, 2007; 권미경·이순형, 2007; 방주아, 2008; 한국교육개발원, 2006)도 이루어졌다. 특히 유학국가에 따른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해 현재 한국 조기유학생들이 많이 나가 유학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뉴질랜드를 선택하여 그 실태를 비교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6)에서는 유학국가에 따라 유학 허용기준이나, 학습 환경이 달라 조기유학의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적응실태조사들은 조기유학생의 생활실태, 학업실태와 적응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발달과 교육의 평가를 모색한다.

### 2) 조기유학생의 문화적응

최근에는 조기유학은 학업을 위해 유학국가라는 새로운 사회로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문화적응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조기유학생에 대한 문화적응연구들(권미경, 2009; 방주아, 2008; 조유수, 2009)도 발표되었다. 문화적응이란 새로운 유학 국가 안에서 경험하는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학업과 생활무대인 학교에서의 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은 주로 긍정적 적응의 측면인 만족감과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의 정도로 평가된다. 조기유학생이 경험하는 심리적 적응의 양상을 살펴 그들의 적응을 도울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려는 연구(박정희, 2006; 유정희, 2005; 이기홍, 2005)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

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박영숙 외, 2002)와 근거 이론을 적용하여 심층면접 분석함으로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설명하고 그 상담적 기초를 제고한 연구(김현주, 2007)는 조기유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법을 제안한다.

학업과 생활무대인 학교에서의 적응을 통해 조기유학생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가능한다. 학업성적과 학교생활에의 만족감,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토대로 보면 외국어 능력이 의사소통과 학업의 도구로 학업적응의 중요 예측요소이다(유정희, 2005; 이기홍, 2005). 중고생 조기유학생들을 보면 한국에서 학교적응을 잘하는 경우에 유학 가서도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과 외국어 능력 향상과 유학 갈 국가의 특성을 고려함이 유학을 계획할 때 중요함을 강조한다(권미경·이순형, 2007). 특히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를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적응에 나타난 발달적 차이를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의 유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 조기유학생의 조력의 방향과 방법이 다르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권미경, 2009).

3)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 가족의 문제와 적응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부부가 떨어져 사는 가족은 이제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기러기가족(Korean Goose Family)’으로 불리듯, 이는 한국의 조기유학 열풍이 낳은 고유명사가 되었다(조유수, 2009). 그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조기유학으로 인한 가족 적응 연구들(조명덕, 2000, 2002; 조은, 2004; 최양숙, 2005)이 증가하고 있다. 조은(2004)은 기러기가족을 ‘초국적 가족/다국적 가구’라고 칭하면서, 이는 ‘영어가 되는 엄마’와 ‘돈 있는 아빠’의 조합이 기본구조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자식 중심이 강한 가족이 보여주는

불안정한 가족형태로 불안정한 부부생활을 토대로 한 안정된 가족의 미래를 지향하는 모순을 내포한 가족이라고 그 성격을 정의했다.

선행연구들은 가족분거로 인해 나타나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홀로 남은 부모나 자녀에의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했다. 기러기 아버지에 대한 연구(최양숙, 2005)에서는 발생원인과 배경, 가족 구성원의 비동거 가족경험, 가족 개념, 가족전망 등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여 이 현상은 교육문제임과 동시에 교육문제의 표지 아래 일어나는 가족의 변화이며, 동조라는 사회심리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기러기 어머니도 정서적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김영희 외, 2005).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기러기 가족의 문제점은 오랜 분거생활에 의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단절, 부부 간 갈등, 아버지의 빈자리로 성장기 자녀들의 문제, 즉 부성실조 가능성,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문제, 가족뒤편바라지에 대한 압박감, 국부의 유출 및 사회문제 등으로 요약되며 그 지원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4) 유학 후 재적응

한국교육개발원(2006)에 의하면 2006년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수는 18,362명이다. 출국학생수가 급증하면서 귀국학생 수도 더 증가할 추세임을 예측했다. 유학 귀국생들은 유학국가에서의 적응과 유학 후 재적응의 어려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비록 2-3년의 기간이어도 학생들의 변화 수용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을 심각하나 귀국 후 국내 적응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귀국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들(권효숙, 2006; 이장호·이동훈·이영선·신효정·송은미, 2006; 정재옥, 2002)은 조기유학생이 귀국 후

인지적 문화적 재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영어 교과에서 얻는 장점에 비해 타 교과의 학습 수준이 떨어지기 쉽고, 학업이외의 교우관계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적절한 국가 교육정책이 있어야 하며, 유학 귀국생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상담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3. 교육학적 접근

교육학적 접근은 조기유학이 공교육 대신 해외에서의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조기유학의 원인과 유학 결정 동기를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 국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공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성적이고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다.

#### 1) 조기유학의 동기 분석 연구

유학을 떠나는 이유에 관하여는 본국에서 ‘밀어내는 요인(push-factor)’과 유학국에서 ‘끌어당기는 요인(pull-factor)’이 부합되면 유학이 결정된다고 설명한 Sirowy와 Inkeles(1984)의 연구가 우리나라의 조기유학 현상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동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사용되었다. 중국으로 조기유학을 가는 동기를 발인요인, 유인요인, 촉진요인으로 분석한 연구(왕성성, 2005)에서는 조기유학생들의 발인요인으로,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기,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비의 부담, 좁은 대학문, 외국어 중시 풍토를 지적했다. 또 최근의 유학을 증가시키는 촉진요인으로는 세계화의 확대와 해외유학 정책의 변화 및 해외유학 자유화를 들었다. 조기유학을 가는 동기를 발인요인, 유인요인으로 살펴본 최근의 국내 연구(권미경,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06)

에서는 조기유학생들이 유학을 통해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유인요인의 비율이 한국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 발인요인의 비율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했듯이 도피가 아닌 도약을 꿈꾸며 유학을 선택하는 최근의 유학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2) 조기유학에 대한 대안 모색연구

한준상 외(2002)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이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이라 강조하면서 조기유학의 금지가 국민의 교육권, 교육 기회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조기유학관련 법규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홍기형, 1994)도 현행 조기유학 제도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해외 유학생 자격규정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조기유학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조기유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유학 후의 적응을 도울 제도적인 보안을 제기한다. 또한, 조기유학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구적 교육관의 시정, 교육과정의 개혁, 입시제도의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조기유학에 대한 대안모색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해외 조기유학과 비슷한 정도의 매력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외국교육기관 입학의 장점과 해외 조기유학의 장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윤정일·백순근, 2006) 교육적 효과는 유사하며, 경제적 효과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조기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교육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며, 특목고나 국제고 설치를 통해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을 더 활성화하여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자성적 노



력이 요구된다.

#### 4. 경제적 접근

조기유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조기유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막대한 정부의 유출로 인식하고 조기유학과 한국에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윤정일 외(2006)는 국내에 유치할 외국교육기관이 제공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는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외화의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조기유학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하기 위해 자녀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의 상대적 순위를 조사하였다.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명문대학 진학, 가족이산 여부, 외국어의 습득, 외국문화 경험, 교육비용이라는 평가 기준 중 인천 외국교육기관에의 장점은 교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족이 분거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며, 해외 조기유학은 외국문화 경험과 외국어의 습득 등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5. 향후 연구 방향

조기유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누적되어가고 다면적 조망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기유학 현상이 지니는 학문적 의미들이 구체화되고 깊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향후 조기유학의 연구방향은 세 가지로서 종단연구, 비교연구, 재적응 연구이다.

첫째, 조기유학은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조기유학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분석은 차

치하더라도 조기유학 경험이 개인적 수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더불어 이후의 생애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지속적 효과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기유학은 문화적응 관점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조기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이해하고, 국내에서 재학하는 학생과 조기유학생, 유학국가 학생 사이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조기유학생이 지니는 특성을 더욱 구체화시켜줄 것이다.

셋째, 조기유학 1세대의 한국 재적응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조기유학 1세대라 여겨지는 2000년대 이전 조기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국내로 귀국 취업하고 있다. 이들의 유학경험을 중심으로 한 삶의 변화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지금까지의 조기유학에 대해 사회학, 심리학, 가족학, 교육학 및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조기유학을 결심할 필요가 없도록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방안들이 제안된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의 발인요인을 줄이려는 노력과 유학국가가 지닌 유인요인들을 공교육 안으로 반영하려는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공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공중과 어린이 외국어 방송을 창설해 외국어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그리고 공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시대 변

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인 수월성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왕따 등의 생활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이 발휘될 수 있고, 개별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재고하고, 국제학교 특구의 설치,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특목고에 외국대학 유학반 운영 등을 시행해야 한다(조명덕, 2002; 조혜영 외, 2005). 또한 교육제도를 가능한 선진국과 호환할 수 있게 바꾸어 외국학생들이나 국내학생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외국 유학생의 유치에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조명덕, 2002).

둘째,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학생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기유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정보는 이미 현지에 적응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이 가진 정보이므로 현지의 조기유학생과 국내의 조기유학 준비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구축이 대안이다(한준상 외, 2002). 유학국별, 지역별 유학생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조기유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경우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유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원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프로그램의 확대도 고려될 수 있다(김진양, 2006).

셋째, 조기유학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학교에서 적응과 학업수준이 유학 국가에서의 적응과 학업수준을 예측해준다는 연

구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7; 왕성성, 2005; 한국교육개발원, 2006)들은 무분별한 도피성 조기유학을 걸러낼 심사기준이 필요하므로 조기유학생들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조기유학 중인 학생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기유학이 일부 가정의 문제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두기 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해외에서 선택한 국가 인력의 교육의 관점에서, 그리고 해외인력관리라는 관점에서 해외 학생들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조기유학생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기유학과 관련된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고(김영희 외, 2006), 조기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정보제공과 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할 체계가 필요하다. 조기유학생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초부처적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안병철, 1996).

또한 조기유학생을 위한 심리적 지원방안이나 개입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유학생들을 위한 상담 등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으로 상담과 중재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박영숙 외, 2002). 또 유학생이 많은 곳에는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현지 지도를 강화함도 필요하다(안병철, 1996; 왕성성, 2005).

그리고 조기유학 인력풀 활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유학생들은 세계화 시대에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풀이다. 국가에서 글로벌 인재의 육성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개인적 자본을 투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니 인재 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왕성성, 2005; 조혜영 외, 2005). 아울러 국가는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동거가족, 기러기 가족의 어려움을 돕는데 사회적 관심과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최양숙, 2005).

끝으로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재적응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귀국학생 특별학급(귀국반)’ 국외 거주 2~3년 이상학생들로 학급을 따로 편성하여 교과목, 수업시수 등을 일반학급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귀국학생 상설지도반’은 학급을 지정하여 방과 후 교실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조기유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가의 해외인력관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커다란 가족의 희생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동기요인을 파악해 조기유학을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교육선진국의 유인요인으로 알려진 교육환경을 끌어 들여 국내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의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나가는 조기유학생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해외 조기유학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교육기회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흡인력 있는 교육기회를 한국교육 제도 속에 만들어가는 정책과 실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강지연(2002).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유학 선택(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7). 조기유학 유형별 분석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개발 사업, 2007-공모-50.  
 권미경(2009).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와 문화적응-발

달적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미경·이순형(2007).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변인 탐색. 인간발달연구, 14(3), 43-63.  
 권효숙(2006). 문화간 적응교육: 반성과 과제. 한국학술정보.  
 김경근·윤혜준(2005). 교육적 동기에 의한 ‘탈한국’의 개연성이 있는 가족특성. 교육사회학연구, 15(3), 29-50.  
 김수매리(2006). 조기유학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연구.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최명선·이지향(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학연구, 13(1), 55-84.  
 김진양(2006). 조기유학의 실태조사 및 대응방향 연구. 기획예산처 보고자료.  
 김현주(2007).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홍원(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규제 순응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과제 2005-지정-41, 교육인적자원부.  
 김홍주(2001). 조기유학의 명암.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제 98호 2005-02-24, 6-9. 제 2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박영숙·박광배·최상진·김주한·Antony J. Marsella (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1(2), 97-139.  
 박정희(2006). 미국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생활적응과 상담활동.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주아(2008).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문화적응, 자아존

- 증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유진(2003). 조기유학생의 '일탈유희문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준중(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교육관련 '탈' 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95-120.
- 안광복(2004).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 *철학과 현실*, 60, 124-130.
- 안병철(1996).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북가주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423-468.
- 오옥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왕성성(2005). 한국인 중국 조기유학생의 유학 선택 및 적응에 관한 연구: 2000년~2004년 베이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2005).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가치관성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일·백순근(2006).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조기유학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2), 299-322.
- 윤혜준(2005).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의 특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홍(2005). 미국으로의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 열망. *사회과학연구*, 44, 105-122.
- 이장호·이동훈·이영선·신효정·송은미(2006). 귀국청소년의 적응관련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혜경(2005). 호주 한인 학생의 적응: 교민과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8(2), 63-95.
- 정재욱(2002). 해외 귀국 중학생의 특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덕(2000). 한국학생들의 영어권 교육체계로의 이동현상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22, 173-198. 경원전문대학.
- 조명덕(2002). 조기유학 붐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상과 인식*, 26(4).
- 조유수(2009). 조기유학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1.
- 조혜영·이경상·최원기·Nancy Abelman(2005).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 최양숙(2005).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1).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의 명암. 2001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6). 인간발달적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의 득과 실. *수탁연구R2006-38*.
- 한준상·기영화·강양원·박현숙·샤론 메리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 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 방향.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홍기형(1994). Some issues and implications on the overseas study of Korean minors.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9, 129-147.
- Kangjiyeun & Nancy Abelman (2009). The domestication of South Korean Early Study Abroad(ESA) in the first Decade of the Millennium
- Sirowy, L., & Inkeles, A. (1984). University-level student exchanges: The U. S. role in global perspective. In Barber, E. G.(Ed.), *Foreign Student Flows*(pp. 29-85). N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09년 8월 22일 투고, 2009년 11월 7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